

애덤 스미스와 통치론

헌법연구관 이황희

▣ 통치, government

- 라틴어 “*guberno*” (지도하다, 다스리다)에서 유래
 - ☞ 고대 그리스어 *kybernao*(배를 조종하다, 지도하다)에서 유래
- 국가가 사경제주체(국민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최고권력체**로서 행하는 **고권적 작용**(Hoheitsakt)
- 정치적 권위에 기초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같은 공권력의 행사
 - ex. 공적 업무 처리, 국민의 권리·의무 조정

▣ LL.D

▣ ‘법과 통치’에 관한, 평생에 걸친 이론적 관심

애덤 스미스 “박사”(Dr.)

- Adam Smith, **LL.D.** (1762년 수여 받음)
- "문학에서 널리 인정된 명성, 특히 이 대학에서 여러 해 동안 **높은 찬사를 받으며 법학을 강의해 온 점**"
- ☞ 이후 모든 출판물에 **법학박사** 표기

평생의 과제로서 통치론(1)

- 『도덕감정론』 초판(1759)

- “나는 추후 별도의 논문에서 법과 통치의 일반원칙들 및 사회의 상이한 연대와 상이한 시기에 이 일반원칙들이 겪어온 다양한 변혁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그때 가서 나는 소위 **정의(justice)**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치(police)**, **세입**, **국방** 및 **법률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한다.”

- ※ **정의**: 권리의 보호에 관한 문제(법학)

- vs **내치**: 부의 증진에 관한 문제(정치경제학)

평생의 과제로서 통치론(2)

- 라 로슈푸코 공작에게 보낸 편지(1785. 11. 1.자)
 - 자신이 현재 두 가지의 대작을 계획 중
 - 그 중 하나는 철학, 시, 웅변 같은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철학적 역사에 관한 것
 - 다른 하나는 **법과 통치에 관련된 이론에 관한 것**

평생의 과제로서 통치론(3)

- 『도덕감정론』 제6판(1790)

- “이 책의 첫판 마지막 구절에서 나는 정의와 관련된 것, 내치, 세입 그리고 군비 등과 같이 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이런 것들과 관련된 법과 통치의 일반원리와 이 원리가 서로 다른 시대와 시기에 겪었던 변혁을 또 다른 논문에서 설명해야 겠다고 말했다. 『국부론』에서 나는 이 약속들 중 일부를 수행했다. 나머지 것...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내가 늙어 만족스럽게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나는 아직까지 이 계획을 전부 포기하지 않았고,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다는 의무감을 계속 갖고 싶기 때문에, ... 30년 전에 썼던 ... 그 문구를 그대로 남겨두기로 마음먹었다.”

평생의 과제로서 통치론(4)

- 『국부론』의 내용

- 정치경제학은 “정치가나 입법자의 학문”

- 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국가권력의 행사방식에 관한 분석

- ☞ 국부증진에 필요한 국가적 역할을 둘러싼 **기술적(記述的) 설명, 규범적 요구들**

- ※ 밀러: 스미스의 정치경제학 강의는 이익추구 원리에 기초한 정치적 규율

- (political regulations)을 다루는 것

- 미셸 푸코: **공법의** 문제가 『국부론』의 분석 전체를 관통

- 셸던 윌린: 스미스에게 경제학은 정치학(statesmanship)의 **보조적인** 분과

- 중상주의는 영국 사회의 **정치적 의사결정상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스미스의 분석

▣ 18세기 인물 애덤 스미스

▣ 스미스의 저술은

- 그의 **문제의식**을

- **18세기**(시간), **영국**(공간)에 투사시켜

- **산출한 결과물**

1. 개관

도덕철학자 애덤 스미스

- 도덕철학자! (Moral Philosophy)
 - 윤리학 & 법학
 - 법학(jurisprudence)
 - “통치를 지도하는 규칙에 관한 이론”, “법과 통치의 일반원리에 관한 이론”
 - 오늘날의 법학, 정치학, (정치)경제학 등 포괄
- ☞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은 법학의 서브테마

<참고>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

- 어원적으로, 경제를 의미하는 영단어 economy는 희랍어 oikonomia에서 나온 것인데, 이는 '가정, 가재(家財)'를 의미하는 oikos와 '관리, 소유'를 의미하는 nomos의 결합으로 구성된 말이다. 즉 원래 '경제'는 가정경제를 의미했다.
- 근대에 이르러 경제적인 문제가 가정의 범위를 넘어 공적 문제로 부상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문제는, 종래 경제란 가정에 국한된 의미였으므로 '국가적 범위에서 사고되는 경제'를 나타내는 표현이 새로이 필요하였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등장한 어휘가 바로 political economy였으며, 이는 국가(polity)의 경제(economy), 즉 국가적 오이코스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 political economy가 단순히 economy로 명명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 무렵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애덤 스미스(1723-1790)의 저술

- 윤리학 → 『도덕감정론』 (1759년 초판, 1790년 제6판)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법학 [→ 『법학강의』, 1763년 강의록(1895), 1762년 강의록(1958)]

- 경제학 → 『국부론』 (1776년 초판, 1789년 제5판)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 『국부론』의 기초는 『법학강의』, 『법학강의』의 토대는 『도덕감정론』

☞ *스미스의 경제철학은 『국부론』이 아니라 『도덕감정론』에 담겨 있다(슌페터).*

※ "애덤 스미스 문제"(Das Adam Smith Problem)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

애덤 스미스의 생애(1)

- 1723년 스코틀랜드 커콜디, 출생

※ 부친(애덤 스미스): 1707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합병 지지파
종교적으로 개신교, 정치적으로 휘그파

- 1737년 글래스고 대학

- 스승 프란시스 허치슨("never to be forgotten")

- 1740~1746년 옥스퍼드 유학

- 고대 그리스·로마 고전 공부

- 차별대우; 흙의 책을 읽다 들켜 책을 뺏김

애덤 스미스의 생애(2)

- 1748년 에든버러 대학 출강

- 당시 에든버러, “북구의 아테네”

- ※ 토마스 제퍼슨, “세상 그 어느 곳도 에든버러와 경쟁할 수 없다.

- 영국과 미국의 대학들은 그 다음 자리에 있다.”

- 수사학, 문학, 법학 등 강의; **데이비드 흄**과 교류

- 1751~1752년 글래스고 대학 (논리학 교수)

- 1751년 말 도덕철학 교수(크레이기)가 병환으로 강의를 할 수 없게 됨

- 대학 측은 대체자 물색해 스미스에게 **자연법론과 정치학** 부분 강의 제안

- 스미스는 이들 과목에 자신감을 보이며 흔쾌히 수락함

애덤 스미스의 생애(3)

- 1752년, 도덕철학 교수 임용
 - 1759년, 『도덕감정론』 출간
 - 1762년, 1763년, 『법학강의』 (노트 A, B)
 - 1764~1766년 그랜드투어 교사
 - 타운센드 공작의 의붓아들 버클루; 평생의 연봉 제안 (* 홉스, 로크 등)
 - 프랑스에서 중농주의자 케네와 만남 (* 중농주의, 자유방임사상)
- ※ 1764년 여름경, ‘시간을 때울 겸 해서 책 한권을 쓰고 있다’고 흠에게 서신 보냄
- ☞ <국부론>에 관한 최초의 언급?

애덤 스미스의 생애(4)

- 1766년 이후

- 관세청 위원, 글래스고 대학 총장
- 『도덕감정론』 제6판(1790), 『국부론』 제5판(1789)
- 죽기 직전, 친한 친구들에게 미완의 원고들을 소각해 줄 것을 요청

- 1790년 사망

- 에든버러, 캐넌게이트 교회
- “『도덕감정론』 과 『국부론』 의 저자, 여기 잠들다. ”

시대적 배경

[1] 정치: 명예혁명 이후 제한적 정치체제(limited government)

[2] 경제: 중상주의(重商主義, Mercantilism)

- 당시의 부는 화폐 혹은 금은과 동일시 → 수출 장려와 수입 억제 정책
- 국가는 외국으로부터의 화폐 유입 장려, 국내 화폐의 해외 유출 억제
 - 국가가 주요 상공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그들에게 독점권을 줌
- 경쟁을 억압함으로써 일부 상공업자들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그로써 그 외의 사람들의 이익을 희생시킴 → 특권화된 소수의 상공업자들과 국가권력 간의 결탁
- 중상주의 비판은 『국부론』의 핵심 주제

스미스 정치이론에 관한 연구 흐름(1)

- 18세기 유럽 사회의 지배적인 두 가지 담론
- [1] 고전적 공화주의(시민적 인문주의)
 - 고대 그리스·로마,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 포콕(J. G. A. Pocock), <마키아벨리언 모멘트>; 윈치(D. Winch), <애덤 스미스의 정치학>
- 주요 내용
 - 전통적으로, 공적 삶을 위한 헌신, 덕성(virtue)의 실천, 혼합정체 등의 가치를 추구함
 - 18세기에는 상업사회와 덕성의 관계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 됨
 - 스미스는 **이익의 추구하고 덕성의 문제, 노동분업에 따른 덕성의 상실** 문제를 중요하게 여김

스미스 정치이론에 관한 연구 흐름(2)

• [2] 근대 자연법론

- 고대 스토아학파 ⇨ 그로티우스, 푸펜도르프

※ 당시 북유럽의 개신교 대학들, **푸펜도르프의 자연법론**이 윤리학 수업의 표준적 교육내용

- 카마이클: 푸펜도르프의 저술을 글래스고 대학의 커리큘럼에 포함시킴

- 허치슨: 스미스에게 큰 영향을 끼침

※ 글래스고 대학의 도덕철학 교수직: 카마이클 → 허치슨 → 크레이기 → 스미스

• 주요 내용

- 개인의 **자기보존성**과 **사회성** (※ 토마스 홉스)

- 개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의 종류와 내용 등에 대한 논의

- **국가의 형성과 통치원리, 저항권** 등에 관한 논의

스미스 정치이론에 관한 연구 흐름(3)

- 반반?

- 덕성론, 노동문제 비판론은 공화주의 색채
- 국가와 법, 권리 등 전반적 통치론은 근대 자연법론의 영향

- 자유주의?

- 자유주의(liberalism)라는 용어는 19세기에 주조된 용어
: ex. 1812년 스페인, 1819년 프랑스, 1822년 영국
- 개인의 자기보존성을 긍정한 자연법론은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종래의 비판들을 무마해 주었고**,
세속적 경제활동과 자본주의 상업문화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였다. 이로부터 고전
정치경제학의 이론적 기초와 경제적 자유주의의 이념적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된다.

II. 개인의 권리와 자유

개인의 권리와 자유: 1. 인간의 본성

■ 자기보존성 & 사회성

(☞ 당대 자연법론의 기본구도와 일치)

-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그의 본성(nature)에는 이와 상반되는 몇 가지 원리들이 존재한다. 이 본성으로 인하여 인간은 타인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단지 그것을 바라보는 즐거움 밖에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행복**을 필요로 한다.” (『도덕감정론』)

개인의 권리와 자유: 1. 인간의 본성

■ 두 본성의 역할

- **자기보존성**은 인류의 물질적 진보를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나, 이를 무한정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탐욕으로 이어져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 이 본성은 '적절한 수준'에서 발휘되어야 하는데, 이 적절성을 규율하는 것이 바로 **사회성**으로부터 생성되는 도덕규범이다

“도덕규범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 1. 인간의 본성

■ 공감(sympathy)

- 도덕규범의 기초를 이성이나 관습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나 감각**에서 찾는 것은 당시 스코틀랜드 계몽학파의 주요한 특징
- 스토아의 심파테이아(sympatheia)는 우주적 조화에 관한 철학적 믿음을 표현한 개념인데, 스미스는 이것을 도덕적 판단의 메커니즘으로 활용함
- “자연이 인간을 사회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었을 때, 자연은 인간에게 자신의 동포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하는 본원적 욕구와 그들을 불쾌하게 하는 것에 대한 본원적 혐오를 부여하였다. **자연은 동포들의 호의에 기쁨을 느끼고, 동포들의 혐오에 고통을 느끼도록 가르쳐주었다.**”(『도덕감정론』)

개인의 권리와 자유: 1. 인간의 본성

■ 공감(sympathy)

- 스미스에게 도덕평가의 문제는 **감정의 적절성 평가문제**로 귀착되는데, 공감작용은 이러한 감정의 적절성 평가를 위한 기준을 제공함
- **관찰자는 행위자의 감정을 공유하게 되고, 관찰자에게 유발된 감정에 비추어 행위자의 원래 감정의 적정성을 평가함**
- (1) 관찰자 감정을 기준으로 행위자의 감정이 과하다고 여겨진다면, 관찰자는 행위자의 감정과 그에 기초한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ex. 별일 아닌데 크게 화를 내는 경우)
- (2) 행위자의 감정이 관찰자의 그것과 비교해 적절하다고 평가된다면, 관찰자는 행위자의 감정과 그의 행위를 인정해 줄 것이다. (ex. 화 낼만한 사안에서 화를 내는 경우)

행위자의 감정과 관찰자의 감정이 조화를 이루는 행위가 적정한 행위!

개인의 권리와 자유: 1. 인간의 본성

■ 일반적 규범의 형성

- 처음에는 타인의 행위에 대한 적정성 판단이 **개인에 의해 개별적 차원**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이 판단이 **사회적 차원으로 확산되어** 복수의 사람들에 의해 반복적이고 중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한 판단이 **일반화, 평균화되어 나타나게 됨**
- 스미스는 이러한 일반화, 평균화 과정을 거쳐 일반적 효력을 갖는 규범이 탄생하게 된다고 이해함
- **[의의]** (1) 이 규범은 **정치(혹은 국가)의 작동 없이도 성립**되는 자연적 규범임
 - ☞ 국가 이전의 자연상태를 규범의 진공상태로 이해했던 홉스에 대한 반박
- (2) 자연적 규범은 신적 계시나 선형적 법칙이 아니라, **인간들 간의 상호성의 산물**

개인의 권리와 자유: 2. 덕성론

■ 기본덕성론(cardinal virtues)

- 덕성은 고대 그리스 이래 서양 윤리학의 오랜 주제
- “훌륭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 전통적 기본덕성: 사려(지혜 prudentia), 용기(**fortitudo**), 절제(temperantia), 정의(iustitia) by 플라톤, 제논, 키케로, 암브로시우스, 아퀴나스
- 스미스: 사려(prudence), 정의(justice), **자혜(beneficence)**, 자기제어(self-command)

전통적 목록	사려	정의	용기	절제
스미스의 목록	사려	정의	자혜	자기제어

개인의 권리와 자유: 2. 덕성론

■ (1) 사려(prudence) – 자신의 행복에 관여하는 덕성

- 서구 철학에서 사려(prudence)는 일종의 지혜, 특히 실천적 지혜.
- 스미스는 사려를 **자신의 행복에 관여하는 덕성**으로 재정의함 ➡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과 이익에 대한 고려 역시 많은 경우 매우 칭찬을 받을 만한 행위 원칙” (『도덕감정론』) (ex. 자신의 건강과 재산, 평판과 같은 현세의 안락과 행복)
- “자신의 건강이나 생명, 재산에 대해서는 적절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의심의 여지없이 하나의 결함을 가지고 있다.” (『도덕감정론』)

근대 경제학의 기본가정을 도덕적으로 승인

개인의 권리와 자유: 2. 덕성론

■ (2) 정의(justice) – 타인의 행복에 관여하는 덕성(소극적)

- 서구 철학에서 정의는 공적(merit)에 따라 그에 합당한 응분을 부여하는 것
 - ☞ 아리스토텔레스, 분배적 정의; “각자에게 그의 것을”
- 스미스는 **타인을 해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 혹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서 정의의 의미를 재정의함
- “정의의 최종목표는 **인간이 자신의 완전한 권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고, “정의의 규칙의 목적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음 (『도덕감정론』; 『법학강의』) ☞ **“모든 통치체제가 우선적으로 주요하게 여기는 목적”**(『법학강의』)

윤리학과 법학을 매개하는 핵심 개념

개인의 권리와 자유: 2. 덕성론

■ (3) 자혜(beneficience) – 타인의 행복에 관여하는 덕성(적극적)

- 스미스가 '용기'를 대신해 새로이 포함시킨 덕성으로서, **타인의 복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
- F. 허치슨의 영향: 허치슨은 자비(benevolence) 즉 타인의 복리에 기여하는 것이 유일한 덕성이라고 주장함
- “자신의 능력껏 모든 방법을 다하여 자기 동포들 전체의 사회 복지를 증진시키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훌륭한 시민이 아니다.”(『도덕감정론』)

공화주의적 가치를 담고 있는 덕성

개인의 권리와 자유: 3. 권리론

- 권리론은 근대 자연법론의 특징적인 내용
- 스미스는 정의를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재산 같은 인간의 이익들을 해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그러한 여러 이익들을 자연법론의 틀 속에서 권리의 내용으로 범주화함으로써 **정의와 권리를 도덕이론과 법이론을 잇는 매개로 활용**(하콘센)
- 공감에 기초한 권리이론: 관찰자가 피해자의 분노감정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일 때 스미스는 그런 피해상황이 바로 침해(injury)에 해당한다고 규정함 → 이 때 인간은 이들 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간주됨

※ 스미스의 권리 개념은 '침해'의 성립여부에 달려 있고, '침해' 여부는 다시 공감작용에 의해 판단됨

개인의 권리와 자유: 3. 권리론

[1] 개인의 지위에 따른 분류

- **'한 인간'** 으로서의 권리
 - (1) 신체에 관한 권리
 - ① 신체의 침해로부터 보호(살해, 상해)
 - ② **자유**의 침해로부터 보호
 - (2) 명예에 관한 권리
 - (3) 재산에 관한 권리
 - ① 대물권(소유권, 담보권 등)
 - ② 대인권(계약, 불법행위 등)
- **'가족의 구성원'** 으로서의 권리(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주인으로서, 하인으로서)
- **'국가의 구성원'** 으로서의 권리(시민의 저항권 등)

개인의 권리와 자유: 3. 권리론

[2] 권리의 기원에 따른 분류

(1) 자연권으로서의 권리

-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 즉 공적 승인이나 제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권리
- Ex. 생명과 신체에 관한 권리, 자유에 관한 권리, 명예에 관한 권리

(2) 취득권으로서의 권리

- 어떤 제도적 계기를 통해 비로소 인간에게 귀속된 권리
- Ex. **재산권**(“일반적으로 민법의 피조물”, “소유권의 상태는 정치의 형태에 따라 항상 변해야 했다.” 『법학강의』)

개인의 권리와 자유: 4. 자유론

■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이익

- 전통적으로 사익과 재물을 향한 인간의 욕망은 부정적으로 이해되었고, 특히 사익에 매몰되어 공익을 도외시하는 모습에 큰 비판이 가해짐
 - ex.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 맨더빌, <꿀벌의 우화>의 부제: **“개인의 악덕, 사회의 이익”**
- 스미스는 **사리추구를 사려의 덕성이 관여하는 행위**로 규정하는 동시에(『도덕감정론』), 사리추구를 **“인간의 가장 신성한 권리”**로 규정(『국부론』)
 - ☞ 윤리적, 규범적으로 정당화

개인의 권리와 자유: 4. 자유론

■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이익

- 또한, 사리추구를 **사회이익의 측면**에서도 정당화함
 - “노동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그 노동을 이끄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다. ... 그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흔히, 그 자신이 진실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하는 경우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그것을 증진시킨다.” (『국부론』)
 - “우리가 매일 식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과 양조장 주인, 그리고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들의 고려 때문**이다.” (『국부론』)

III. 국가와 통치제도

국가와 통치제도: 1. 국가의 성립

■ 인간의 본래적 평등과 자유

- 평등하고 자유로운 인간은 공감능력을 통해 자유의 평등한 향유를 뒷받침하는 자연적 질서(natural order)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스미스의 구도
- 그러나 이 자연적 질서는 완전하지 않음. 개인들 간의 분쟁이 발생할 때 사적 복수를 불러와 질서를 허물어뜨릴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
 - ☞ “사회는 유혈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장소로 변하게” 됨(『도덕감정론』)
- 자연적 질서는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을 스스로 산출할 수 없음

국가 통치의 필요성 도출! (cf. 홉스, 로크)

국가와 통치제도: 1. 국가의 성립

■ 사회계약론 비판

- 계약론적 논의방식의 보편적 타당성 문제
: 계약론이 없는 국가들
- 계약의 인적 효력범위와 관련한 문제
: 후손들
-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계약 여부 문제
: 의사와 무관한 출생지

국가와 통치제도: 1. 국가의 성립

■ 자연적 진보(natural progress)의 소산으로서 국가

- ※ 홉스(절대군주제), 로크(제한군주제), 롤즈(복지국가)처럼 특정한 이상적 체제를 성립하게 만드는 '특정한 정당한 정치적 원리'를 도출하는 계약론적 논법을 비판함
- 스미스는, 언제나 더 나은 상태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적 개선노력**에 기초해 국가와 통치제도를 논함 →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한 부단한 노력!
- 인간은 특유의 감성으로 인해 '어디에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낌(『법학강의』)
- 이는 **물질적 측면**뿐 아니라, **정신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인간의 본성은 공공복리(public welfare)의 증진에 적합한 제도를 도입**하게 해 준다(『도덕감정론』)

초월적 제도주의 vs 비교론적 접근 (아마티아 센)

국가와 통치제도: 1. 국가의 성립

■ 국가의 역사성

- [4단계 역사관] 수렵시대(Age of Hunters), 목축시대(Age of Shepherds), 농업시대(Age of Agriculture), 상업시대(Age of Commerce)로 구성됨(『법학강의』; 『국부론』)
 - ※ 생산양식, 혹은 생활양식이라는 경제적 관점으로 설명 👉 마르크스에 영향
- 최초의 시대인 수렵시대에는 국가적 통치가 존재하지 않았음
- 목축시대가 도래한 후 독점적, 배타적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소유의 관념이 등장하자 사람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받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모색의 산물로서 국가가 설립됨

국가와 통치제도: 2. 통치제도


■ 국가의 목적

- 국가의 가장 큰 목적은 **정의의 유지(권리의 보장)와 개인의 행복 증진**
- 모든 통치체제의 우선적 목적은 **정의의 유지**(『법학강의』)
- “모든 국가의 지혜는 그 나라의 권위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타인의 행복을 해치거나 교란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 사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도덕감정론』)
- “모든 통치제도는 오로지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을 얼마만큼 증진시키는가라는 관점**에 의해서만 그 가치가 평가된다. 이것이 통치제도의 유일한 용도이자 목적이다.”(『도덕감정론』)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통치제도는 무엇인가?”

국가와 통치제도: 2. 통치제도

[1] 권력분립

- 스미스는 몽테스키외의 예에 따라 국가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분할 & 견제와 균형 중시  특히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역할 강조
- **사법권의 역할** 중시는 몽테스키외와 스미스의 차이점
- 몽테스키외는 “세 가지 권력 중 **재판을 하는 권력은 어떤 의미로는 무력하다**”고 규정하면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는 “두 가지 권력밖에 남지 않는다”고 했음(『법의 정신』)

국가와 통치제도: 2. 통치제도

[1] 권력분립

- “**개인의 자유, 개인의 안전감은 공평무사한 재판에 달려 있다.** 모든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모든 권리를 완전히 안전하게 누리고 있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은 행정권으로부터 **분립**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재판관은 행정부의 변덕에 따라 면직되어서는 안 된다. 재판관이 규칙적으로 급료를 받는가의 여부가 행정권의 선의 또는 심지어 그 경제적 여유 여하에 달려 있어서는 안 된다.”(『국부론』)

국가와 통치제도: 2. 통치제도

[2] 대의제

- 대표들은 당파적인 이익(partial interest)이 아니라 **보편적인 이익(general good)의 관점**에서 지도되어야 하고, 이 같은 대표들의 판단을 방해하는 사적 이익(private interest)과 **파당(faction)의 부당한 영향력은 근절되어야** 한다 (『국부론』)
- 스미스는 특히 파당의 문제를 경계
 - ☞ “국민 상호간의 우호감정을 파괴하고”, “정부의 안정을 해”치기 때문
 - ※ 훗날 J. 매디슨의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제10번 논설을 연상시키는 주장

국가와 통치제도: 2. 통치제도

[2.1] 입법의 원리: ①자연적 정의 규칙의 실정화

- 실정법은 “**자연적 정의의 규칙들과 일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도덕감정론』)
- 실정법 체계는 “자연법론의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또는 정의의 개별 규칙들의 열거로 나아가기 위한 **다소 불완전한 시도**”(『도덕감정론』)
- **실정화 실패의 원인**(『도덕감정론』)
 - 국가의 정체(政體) 즉 통치체제의 이해관계
 - 정부를 좌우하는 특정계층 사람들의 이해관계
 - 국민들의 무교양과 야만성
 - 사법제도의 불충분함

국가와 통치제도: 2. 통치제도

[2.1] 입법의 원리: ①자연적 정의 규칙의 실정화

(Q) 자연적 규칙에 반하는 실정법의 효력문제?

- 17세기 에드워드 코크: “실정법이 일반적 권리 또는 이성에 반하...는 경우에는 보통법이 그것을 통제할 것이며 그러한 법을 무효로 판결할 것이다.”
- 스미스는 이 문제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을 남기지 않았음
- “**모든 개인이 자신의 상태를 개선하려는 자연스러운 노력은** ... 인류가 만든 어리석은 법률이 ... 가하는 수많은 부적절한 방해로 극복할 수 있다.”(『국부론』)

국가와 통치제도: 2. 통치제도

[2.1] 입법의 원리: ②평등대우 의무

- 모든 입법이 자연적 정의의 규칙에 대한 실정화의 산물인 것은 아님. 장래적으로 이익을 조정하고 실현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정책을 형성하는 유형의 입법들도 존재함
- 부당한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들이 정의에 관련된다면, “국가의 교역, 상업, 농업, 제조업에 관하여 제정한 모든 법규들(regulations)은 내치에 속한다.”(『법학강의』)
- 경제정책에 관한 입법에서 “일부 계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른 계층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정의(justice)와 **평등대우(equality of treatment)** 의무에 동시에 위반됨 (『국부론』)

국가와 통치제도: 2. 통치제도

[2.1] 입법의 원리: ②평등대우 의무

- 이것(불평등대우, 계급편향성)은 스미스의 중상주의 비판에서 가장 핵심적 논거가 됨
cf. “중상주의란 그 본질에 있어 제한, 통제의 학설”(『국부론(하)』)
- “이들[큰 제조업자들]이 ... 노력하는 것은 결코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중상주의에 의해 주로 장려되는 것은 부자와 권력자의 이익을 위한** 산업뿐이다.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의 이익**을 위한 산업은 너무나 자주 무시되거나 억압을 받고 있다.”(『국부론』)
- “[국민들의] 자유는 ... **상공업자들의 하찮은 이익**을 위해 희생당하고 있다.” (『국부론』)

국가와 통치제도: 2. 통치제도

[2.2] 중상주의의 원인, 즉 **계급편향적 의사결정의 원인**

- 이 현상의 근원적 원인은 **계급 간의 경제적, 정치적 불균형** 에 있음
- 상공업자들은 경제적 여유에 기초해 “일생동안 여러 가지 계획, 목표에 몰두하”
므로 일반인들보다 “예리한 이해력을 갖는 경우가 많”고 “**자기 자신의 이익에 더 밝**”으며, “**자신들의 이익에 관한 아주 뛰어난 바로 이 지식에 의거하여**” 자신들의 이익이 바로 공공의 이익임을 호소하고 설득할 수 있음. 이들은 수가 적기 때문에 뭉쳐서 집단의 힘을 만들어 내기도 쉬움 (『국부론』)

국가와 통치제도: 2. 통치제도

[2.2] 중상주의의 원인, 즉 **계급편향적 의사결정의 원인**

- “이러한 계급[주: 자본가 계급]이 제안하는 어떤 새로운 상업적 법률·규제들에 대해서는 항상 큰 경계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하며, 그것들을 매우 진지하고 주의 깊게 오랫동안 신중하게 검토한 뒤에 채택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이익이 결코 정확히 공공의 이익과 일치하는 않는 계급, 그리고 사회를 기만하고 심지어 억압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이 되며, 따라서 수많은 기회에 사회를 기만하고 억압한 적이 있는 계급**으로부터 나온 제안이기 때문이다.”(『국부론』)

cf. 일반적으로, 자본가 계급의 이익은 사회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은 반면,
노동자 계급의 이익은 사회의 이익과 밀접히 연관됨(『국부론』)


국가와 통치제도: 2. 통치제도

[2.2] 중상주의, 즉 **계급편향적 경제정책의 원인**

- “**제조자들의 독점을 줄이려는 어떤 시도도 군대를 감축시키려는 시도처럼 위험하다** ... 독점을 강화하는 온갖 제안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은 **사업을 이해한다는 명성을 얻을 뿐** 만 아니라, 그 숫자와 부 때문에 **큰 중요성을 갖는 계층의 인기를 얻을** 것이다. 반대로 국회위원이 독점적인 제조업자들을 반대하거나 나아가 그들을 제압할 권위를 갖는다 면, 그가 잘 알려진 성실한 인물이고 높은 지위에 있고 가장 큰 사회적 봉사를 했더라도, **파렴치한 욕설과 비난 그리고 개인적인 모욕을 피할 수 없으며, 분노하고 실망한 독점** 자들의 무례한 행위에 의해 **실질적인 위험을 피할 수 없다.**”(『국부론』)

국가와 통치제도: 2. 통치제도

[2.2] 중상주의의 원인, 즉 **계급편향적 의사결정의 원인**

- 노동자들은 경제적, 시간적 여유의 부족으로 식견을 갖추지 못함
- 그 때문에 사회의 “**공적 논의(public deliberation)**”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 거의 경청되지 않고 존중되지 않는다.**” (『국부론』)
- 이러한 정치적 불균형 상황은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을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호도하여 이를 입법적으로 관철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중상주의가 탄생하는 배경이 됨  중상주의의 계급편향적 문제는 **입법과정에서 자본가들의 당파적 이익이 과잉대표되어 나타난 결과**

국가와 통치제도: 2. 통치제도

[3] 시민의 역할: 선거권과 저항권

- 선거권 (※ 매우 제한적인 유권자 요건)
- 저항권
 - “어떤 정부도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시도하는 것보다는 다소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더 낫다.” (『법학강의』)
 - “기존의 정부를 전복했을 때 발생하는 혼란이 그것을 존속하게 함으로써 생기는 해악보다 작은 곳”이어야만 저항권 행사가 정당화된다. (『법학강의』)

저항권 인정 범위: 로크 > 스미스 > 홉스

국가와 통치제도: 2. 통치제도

[3] 시민의 역할: **공적 논의(여론, public deliberation)**에의 참여

-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기 나라의 중대하고 광범한 이해관계”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그로써 당파세력이나 선동세력의 이해관계가 얽힌 불평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국부론』)
- 자유로운 국가(free countries)에서는 정부의 안전이 “정부활동에 대한 국민의 호의적인 판단에 크게 의존”한다. (『국부론』)

18C, 여론을 통한 공중의 “정치적 통제기능”의 탄생
- 하버마스, 『공론장의 구조변동』

국가와 통치제도: 2. 통치제도


◆ 공적 논의의 존중이 가지는 정치적 함의 ◆

- “여론을 존중하는 것은 스미스의 정치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 그것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생각, 즉 스미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통치에 관하여 “사람들이 내리게 되는 판단”을 정치과정의 중심에 두는 것이었다. 그것은 공적 합의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었다.” (엠마 로스차일드, *Economic Sentiment*)
- 스미스에 있어서 두 가치, 즉 개인의 자기애와 시민적 의무 간의 긴장관계를 상당부분 해소 ➡ 여론 형성에의 참여는 고전적 형태의 직접참여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시민적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대안

국가와 통치제도: 2. 통치제도


◆ 공적 논의의 존중이 가지는 정치적 함의 ◆

▶ 개혁에 관한 상대적으로 타협적이고 온건한 스미스의 입장

- “공익정신을 가진 사람은 이미 확립된 권력이나 특권을 ... 거대한 폭력의 행사 없이는 없앨 수 없을 때에는 ... 스스로 온건해지는(moderating) 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도덕감정론』)
- “**체제에 매몰된 사람**(man of system)은 ... **자기의 계획에 반대될 수도 있는 강력한 편견들이나 커다란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계획을 완전히 그리고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그는 이 거대한 사회를 구성하는 서로 다른 **구성원들을 마치 장기판 위에서 손으로 말들을 배열하는 것만큼이나 아주 쉽게 배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 **인간사회라는 거대한 장기판에서는 모든 말 하나하나가 자기 자신의 운동 원리를 가지고 있[다].**” (『도덕감정론』, 제6판(1790)에 추가된 내용  **프랑스 혁명에 대한 비판?**)

IV. 국가의 역할

국가의 역할: 1. 보이지 않는 손

-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자유방임주의, 야경국가(Nachtwachterstaat)
 - 국가는 불필요한 존재? 필요악?
 - 보이지 않는 손은 애덤 스미스에게 어떤 비중을 갖는가?
- 사적 욕구의 충족이 공적 차원의 번영을 가져온다는 통찰은 몽테스키외나 맨더빌이 보여준 바가 있었음
-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을 스미스가 최초로 사용한 것도 아니었음. 고전 문헌 속에서 드물게 등장했던 이 표현이 보다 빈번히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은 17세기 이후였고, 주로 인간의 역사에 대한 신의 관리, 자연의 운행에 관한 신적 지배와 같은 관념을 지시했음

국가의 역할: 1. 보이지 않는 손

- 스미스의 전체 저작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은 단지 세 번 확인됨
 - "천문학사", 『도덕감정론』, 『국부론』에서 각 1회
- 18, 19세기 주요한 정치경제학 저서들 즉, 맬서스의 『인구론』(1798), 리카도의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1817), J. S. 밀의 『정치경제학 원리』(1849), 마르크스의 『자본론』(1887)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이 언급된 바 없음
- 특히, 스미스가 이 개념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긴 흔적이 없음
& 용법 간의 일관성 부재

국가의 역할: 1. 보이지 않는 손

[1] “천문학사” (*History of Astronomy*)

- 보이지 않는 손은 **현상의 '불규칙성'을 해명하는 배후원리**를 표상(경제와 무관)
- “불은 타오르고, 물은 다시 채워진다. 무거운 물체는 가라앉고, 가벼운 물질은 위로 날아간다. 이것은 자신의 본성이라는 필연성에 따른 것이다. **주피터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다고 여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천둥, 번개, 폭풍, 햇빛 이러한 **불규칙한 현상들은 그의 호의나 분노 때문이라고 여겨졌다.”**

[2] 『도덕감정론』

- 비의도적으로 달성되는 **조화로운 '분배'** 상태를 가져오는 자연적 원리(경제와 관련)

국가의 역할: 1. 보이지 않는 손

- “‘눈은 배보다 크다’는 소박하고 통속적인 속담이 지주에 대해서보다 더 적합한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의 위(胃)의 용량은 그의 거대한 욕망에 비례해서 크지 않으며, 단지 가장 비천한 농민의 위(胃)의 용량 정도밖에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그 잉여 부분을 그는 ... 농민들에게, ... 하인들에게, ... 나누어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활필수품 몫을 이렇게 지주의 사치와 번덕으로부터 얻어내는데, 만약 이들이 그것을 지주의 인간애나 정의의 감정에서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면, 그것은 헛일이다.

토지 생산물은 언제나 그것이 먹여 살릴 수 있는 만큼의 주민을 유지할 뿐이다. 부자는 단지 큰 덩어리의 생산물 중에서 가장 값나가고 가장 기분 좋은 것을 선택할 뿐이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보다 별로 많이 소비하지도 못한다. 그리고 그들의 본성적 이기심과 탐욕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들이 자신만의 편의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또한 그들이 수천 명의 노동자를 고용해서 추구하는 유일한 목적이 그들 자신의 허영심과 만족될 수 없는 욕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개량의 성과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 가진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토지가 모든 주민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졌을 경우에 있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생활필수품의 분배를 하게 된다. 그리하여 무의식중에 부지불각 중에,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인류 번식의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신의 섭리(Providence)는 대지(大地)를 소수의 귀족과 지주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 분배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망각하지도 방기하지도 않았다.”(『도덕감정론』)

국가의 역할: 1. 보이지 않는 손

[3] 『국부론』

- ‘생산’의 측면에서 개인들의 사익추구 행위가 공익의 증진이라는 비의도적 결과로 이어지게 하는 배후원리(경제와 무관)
- “노동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그 노동을 이끄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다. 이 경우 그는, 다른 많은 경우에서처럼(as in many other cases),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그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회에 좋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흔히, 그 자신이 진실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하는 경우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그것을 증진시킨다.”

- ▶ 보이지 않는 손은 경제원리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반드시 질서를 상징하는 것도 아니었음
- ▶ 사리추구의 위험성도 인식 👉 자연적 진행을 거스르는 인위적 처방의 필요성 인정(후술)

국가의 역할: 2. 구체적 내용들

[1] 권리의 보장과 실현

[1.1] 권리의 보호

- 개인의 권리는 다른 사회구성원으로부터, 혹은 국가권력으로부터, 혹은 타국의 침입으로부터 침해될 수 있음

(1) 타인으로부터의 침해와 관련하여, 스미스는 이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엄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요구함

(2) 법원은 개인의 권리를 국가로부터 보호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봄

- “국가의 큰 이익을 돌보도록 위임된 사람들은, **비록 불순한 의도는 없다고 하더라도**, 때때로 **국가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희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국부론』)

(※ 타국으로부터의 침해는 국방 부분에서 설명)

국가의 역할: 2. 구체적 내용들

[1.2] 권리의 제도화

- **민법과 형법** 등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위한 법규의 필요성을 인정(『도덕감정론』)
- 사회와 경제가 발전해갈수록 재산관계는 복잡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국가가 이에 상응하여 더 많은 법률들을 제정해야 한다고 봄(『법학강의』)

국가의 역할: 2. 구체적 내용들

[1.3] 권리보호에 필요한 제도(사법제도)

- 모든 시민이 사법적 구제의 혜택을 동등하게 향유할 때 시민들은 서로 대등한 지위에 서게 됨
 -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쇠망, 부유한 권력자들의 이익을 위한 “사법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운영”
 - 토지소유자에게만 부동산점유를 회수할 수 있는 소송이 허용되었던 상황에서 차지인에게도 같은 소송이 인정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을 때, “잉글랜드에서는 차지인의 안전보장은 소유자의 안전보장과 동등”하게 되었음 (『국부론』)
- “사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사람들이 소유재산에 대해 안전을 느끼지 못하고, 계약 준수에 대한 믿음이 법률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채무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채무를 상환하도록 강제하는 데 국가의 권위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어떤 나라에서도 상업과 제조업이 장기간 번성할 수는 없다. 요컨대 **상업과 제조업은 국가의 사법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신뢰가 없는 나라에서는 번성할 수 없다.**” (『국부론』)

국가의 역할: 2. 구체적 내용들

[2] 불필요한 제도의 철폐

- 권리에 해가 되는 제도들에 관한 문제
- (1) 한 때 필요했던 제도들이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현실적합성을 상실**,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는 방해물로 전락한 경우(ex. 장자상속제 등)
 - “법률이라는 것은 종종 그것을 만들어 내고 합리화할 수 있었던 상황들이 사라진 뒤에도 오랫동안 효력을 발휘”(『국부론』)

국가의 역할: 2. 구체적 내용들

[2] 불필요한 제도의 철폐

- (2) 필요하다고 생각해 도입한 제도들이 실제로는 **공정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경우**
 - ex. 중상주의 정책들: 동업조합의 특권, 도제법, 정주법 등
 - “자연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동업조합의 배타적 특권을 타파하고, 도제법을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정주법을 폐지함으로써 가난한 노동자가 어느 직업이나 어느 장소에서 실직하더라도, 고발당하거나 이전을 강요당할 근심 없이, 다른 직업을 얻거나 다른 장소에서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부론』)

국가의 역할: 2. 구체적 내용들

[3] 공공시설, 공공사업

- 도로와 교량, 항구, 운하 같은 시설, 화폐발행 등 **사회기반시설**
- “그것의 이득은 사회 전체에 대해서는 그것의 비용을 보상하고도 남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어느 개인이나 소수 개인들에 대해서는 결코 비용을 보상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부론』)

국가의 역할: 2. 구체적 내용들

[4] 공익을 위한 사익의 규제와 조정: 소액은행권 발행 규제 문제

- 소액은행권의 발행은 자연적 자유 → 그 발행의 금지는 자연적 자유의 침해
- 그러나 소액은행권의 발행이 자유롭게 되면 자본력이 충분하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도 은행권 발행가능 → 그들이 파산하면 **사회적 재난 초래**
- 이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화벽(party walls)'(『국부론』)

☞ **'제도적 기반시설'**이라고 부를 수 있을 듯

국가의 역할: 2. 구체적 내용들

[4] 공익을 위한 사익의 규제와 조정: 그 외

- 고용주로 하여금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때 현물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법률이 정당하고 공평함(『국부론』)
 - 스미스는 노동자의 처우 향상이 공익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생각 → 의회에 대한 고용주들의 영향력에 비추어 의회의 결정이 노동자들에게 유리하다면 그것은 정당하고 공평할 것(『국부론』)
- 최고이자율을 법률로 정할 필요성 인정
- 일부 제품의 품질 보증(금은제품의 순도 표시, 아마포와 모직물에 찍는 검인)
- 독점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규제
- 노예관리는 사유재산의 관리 → 법률로 노예를 노예주의 학대로부터 보호할 필요

국가의 역할: 2. 구체적 내용들

[5] 사회 안전: 국방

- “사회를 다른 독립사회의 폭력, 침략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국부론』)
- 강한 국방력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 → ①무기, ②시민의 군사적 덕성
 -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적 진행으로, 전자는 강해지나 후자는 약화됨
- **문제점 (1):** 경제성장을 가져온 **분업의 확대**가 개인의 **군사적 덕성을 상실케 함**
 - “그의 변화 없는 단조로운 생활은 자연히 그의 정신적 용기도 상실케 ... 만든다. 이처럼 그의 특수한 직무상의 숙련과 기교는 자신의 지적·사회적·군사적 덕성들을 희생시켜서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전쟁 시에도 자기 나라를 방어할 수가 없게 된다.” (『국부론』)
 - 상무정신을 배양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필요(『국부론』)

국가의 역할: 2. 구체적 내용들

[5] 사회 안전: 국방

- **문제점 (2):** 시민군 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워 짐
- 전통적 공화주의자들은 시민들의 상무정신과 군사적 덕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비군이 아니라 시민군 제도를 지지해 왔음. 그러나 대규모의 분업체계가 불가능해 진 18세기 상업사회에서, 시민군 제도는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움
- 스미스는 상비군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는데, **상비군 체제의 도입**은 사회 발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인위적이고 정치적인 결단을 요하는 문제**
 - ☞ **“국가의 지혜”**(wisdom of the state)가 필요하다! (『국부론』)

▶ 국가의 지혜란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요구되는 개입적인 정치적 판단
스미스의 “정치가와 입법자의 지혜”, “의회의 지혜”도 유사한 맥락

국가의 역할: 2. 구체적 내용들

[5] 사회 안전: 국방

- 스미스는 **국가안전보장**을 매우 중요한 공익적 가치로 여겼음
- 그는 거래와 무역의 자유를 중시했지만, 그럼에도 외국 선박을 금지하거나 그에 무겁게 과세함으로써 영국 선박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항해법**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함
 - 해운업을 자유방임에 맡겨 둘 경우 영국 회사가 외국 회사, 특히 당대 해운업의 최강자였던 네덜란드 회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할 우려 → 영국 해운회사와 그 인력, 기술, 설비가 사멸
 - “아마도 영국의 모든 무역규제 중에서 가장 현명한 규제”, “**국방이 풍요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 (『국부론』)

국가의 역할: 2. 구체적 내용들

[6] 노동자/빈민 배려

- 노동자/빈민에 대한 스미스의 인식의 새로움
- **(1) 인간은 천부적 재능에서 평등하고, 능력의 차이는 분업에 따른 후천적인 것이라고 간주**
 - “천부적으로 철학자와 거리의 짐꾼 사이의 차이는 맹견과 사냥개 사이의 차이, 사냥개와 애완견 사이의 차이, 그리고 애완견과 목양견 사이의 차이의 반도 되지 않는다.”(『국부론』)
 - 플라톤에게 분업이 선천적 재능의 산물이라면, 스미스에게 재능의 차이는 분업에 따른 후천적 산물
- **(2) 노동가치이론**
 - “노동은 모든 상품의 교환가치를 측정하는 진실한 척도” (『국부론』)
 - “스미스는 ... 사유의 영역에 노동의 개념을 끌어들이므로써, ... 화폐, 교역, 교환에 관한 기존의 모든 분석들이 일거에 지식의 선사시대로 밀려가게 되었다.”(푸코, 『말과 사물』)

국가의 역할: 2. 구체적 내용들

[6] 노동자/빈민 배려

- (3) 빈곤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 종래 빈곤현상은 노동력 확보를 위한 필요악 → 저임금은 정당한 것

- ☞ 스미스는 고임금 정책과 적절한 휴식의 필요성 주장

- 정치경제학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풍부한 수입과 생계수단을 제공하는 것”

- “어느 사회라도 그 구성원의 대부분이 가난하고 비참하다면 번영하는 행복한 사회일 수 없”다, “그 대부분의 상태를 개선하는 것은 결코 전체에 불리한 것이라고 간주될 수 없”다. (『국부론』)

국가의 역할: 2. 구체적 내용들

[6] 노동자/빈민 배려

- (4)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의 역할

- “그들의 정신은 마비상태에 빠져서 어떤 합리적인 대화를 이해하거나 그런 대화에 참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떤 관대하고 고상하고 온화한 감정을 느낄 수 없게 되며, 따라서 사생활 방면의 수많은 일상적 의무들에 대해서도 정당한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된다. 그는 자기 나라의 중대하고 광범한 이해관계를 전혀 판단할 수 없게 되며 ...”

- “진보하고 문명화된 모든 사회에서는 노동빈민, 즉 대다수의 인민들은, 정부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한 필연적으로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 “사람들이 완전히 타락하고 퇴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역할: 2. 구체적 내용들

[6] 노동자/빈민 배려

- 스미스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공공교육**에서 찾았음
- 교육을 통해 노동자들의 정신적 무능화 문제를 개선하고 지성과 판단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
→ 노동자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배양하여 그들이 정치인들의 당파적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함
- 노동자/빈민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졌음(정신적 무능력의 대물림 현상을 우려)
- ▶ 지금 보면 순진한 생각. 그러나 자본주의가 낳는 계급적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의 가치에 주목해야 함
- ▶ 영국, 1870년 초등교육법(Elementary Education Act) 제정, 1891년 초등교육 무상

국가의 역할: 2. 구체적 내용들

[7] 과세

- 과세의 공평 중시
- **비례적 과세**
 - “한 국가의 국민이라면 마땅히 가능한 한 **각자의 능력에 비례하여**(in proportion to)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 기여를 해야 한다. 즉 국가의 보호 하에 각자가 획득하는 수입의 크기에 비례해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 ... 이른바 과세의 공평 또는 불공평은 이 원칙의 준수 여하에 달려 있다.”
- **누진적 과세**
 - “부자들이 수입에 비례해서뿐 아니라 **그 비례를 약간 초과해서** 공공수입에 기여하는 것은 그렇게 불합리한 일이 아닐 것”(『국부론』)
- 창문세(window-tax)와 같이 역진적 효과를 갖는 과세에 반대

국가의 역할: 2. 구체적 내용들

[7] 과세

- 과세를 이용한 **정책적 효과, 재분배 효과**에 대한 인식 보여줌
- 사치품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사치품의 소비를 감소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상대적으로 건강에 더 해가 되는 **증류주**를 맥주보다 더 비싸게 만들어 증류주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과세방식
- 부자들이 소유하는 사치스러운 마차에 대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더 무거운 통행료를 부과 → **“부자들의 교만함·허영심이 빈민들의 구제에 매우 ... 기여하게 될 것”** (『국부론』)
- **“독점자의 이익은, 그들이 그런 이득을 얻을 때에는 언제든지, 가장 적합한 과세 대상”**

국가의 역할: 2. 구체적 내용들

[8] 국내 산업 보호

- 해운업의 최강자였던 네덜란드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열세에 있었던 영국의 선박에 특혜를 주는 항해법을 격찬함
- 국내 산업의 생산물에 세금이 부과될 때,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동종의 상품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자국 산업의 생산물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해주어야 함
- 스미스가 자국의 생산물에 대하여 고율의 관세나 금지조치를 부과하는 타국에 일종의 **무역보복조치**를 가할 필요성 인정
 - 단순한 복수심에 의한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이었으나, 상대 국가의 높은 관세나 금지조치를 취소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러한 보복조치는 좋은 선택이 될 것(『국부론』)

국가의 역할: 3. 스미스의 입장

- (1)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존중의무**)
 - “자본·노동을 자신들이 판단하여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것은 인간의 가장 신성한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국부론』)
 - (2) 국가는 개인의 자유, 사회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개입적 역할을 해야 한다(**개입의무**)
 - 자유로운 사회(특히 시장)은 저절로 확립되지 않는다
 - 구 제도의 철폐, 새로운 법률과 제도의 확립, 끊임 없는 감시(정의 유지), 사익 규제와 조정(방화벽), 공공시설의 제공·관리, 사회의 존속과 발전에 유해한 현상들에 대처(분업의 폐해에 대한 공공교육 제공, 상비군 도입)
- ▶ 1760-1850년, 영국 정부는 경제활동에 관한 수많은 제약들과 법규들 폐지시킴
- ▶ 1802년 이래 공장법, 1840년 굴뚝청소부법, 1842년 탄광법, 1847-1850년 10시간법 제정

국가의 역할: 3. 스미스의 입장

- 스미스가 국가의 개입에 반대했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음. 그는 '부당한 개입'만을 반대했을 뿐, 자신이 정당하다고 여기는 개입적 역할들을 국가에 요구함
- 그렇다면, 정당한 개입과 부당한 개입을 가려내는 기준은 무엇인가?
국가권력의 정당한 행사방식과 부당한 행사방식을 식별하는 근거는?
 - ex. 플라톤: 지혜에 따른 통치와 그렇지 않은 통치(『국가』)
법에 따른 통치와 그렇지 않은 통치(『정치가』)
 - 아리스토텔레스: 공익을 추구하는 통치와 사익을 추구하는 통치(『정치학』)

국가의 역할: 4. 정치경제학과 통치론

- 스미스: 국가는 **개인의 행복을 얼마나 증진시키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측정된다(『도덕감정론』)
- 국가권력의 행사가 개인과 사회의 안전과 자유, 이익 등의 증진에 기여하는가, 아닌가
 - ☞ 정치경제학은,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개입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스미스의 정치경제학은,
 - 입법자와 정치가의 (통치론적) 관점을 취함
 - 계산적 지식에 의지하여 **경제적 풍요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국가권력의 작동방식과 그렇지 못한 작동방식을 식별**하고, 후자의 부당성을 논증함
 - 경제적 풍요와 정의, 사회 안전(국방) 간의 관계를 분석함

국가의 역할: 4. 정치경제학과 통치론

예컨대,

- 특정인 혹은 집단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
 - 위험을 무릅쓰고 원거리 국가들과 교역관계를 수립하는 데 성공한 상인 집단, 새로운 기계를 발명한 발명자, 새로운 책의 저자 등에 대한 일시적 독점권은 **정당** 👉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
- **최고이자율의 법정화**(고리대에 의한 수탈 방지)
 - 최저 시장이자율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음
 - 매우 높게 규정한다면 낭비자나 투기사업자들만이 그러한 이자를 감당하려 할 것이고, 약간 높게 규정한다면 그러한 사람들보다 성실한 사람들이 차입자로서 더 선호될 것인데, **후자가 그 사회의 자본을 더 유리하게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국부론』)

국가의 역할: 4. 정치경제학과 통치론

- 중상주의적 규제는 국부증진에 유해하므로(+ 자유 침해, 계급편향성) **부당**
- 항해법은 (국부증진에는 유해할지 몰라도)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므로 **정당**
- 노동자/빈민, 그 자녀들에 대한 **공공교육**은 **정당**
 - 분업현상이 낳는 폐해를 교정하기 위한 것
 - 정치적 식견과 발언력을 키워, 공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함
- **비례적(혹은 일부 누진적) 과세**는 부자에게 부담이 되므로 **정당**
vs 노동자/빈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과세방식은 **부당**

※ 이 판단은 시대별로 다를 수밖에 없음.

ex. **수도공급**: 18c 애덤 스미스(사기업) vs 19c J. S. 밀(공공기능, public function)

국가의 역할: 4. 정치경제학과 통치론

◆ 국가권력 제한이라는 실천적 문제

- 17세기 중엽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유럽은 **주권국가들의 공존체제**로 진입
 - **개별 국가들 간의 전면적 경쟁**이 불가피
 - 한 국가는 군사, 외교, 경제 등에서 다른 국가들과 경쟁을 펼쳐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
- **한 사회의 인구와 부가 국가적 문제로서 국가의 관심대상**이 됨 → 국가적 경쟁체제 속에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통치기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자라났고, 그 속에서 “나라의 번영이라고 불리는 무언가가 이해 가능한 연구 영역”임이 자각됨
 - **통계학(statistics)이라는 명칭**은 **18c 중엽** 독일인 아헨발(G. Achenwall)에 의해 최초로 사용
 - statistics는 그가 사용한 독일어 Statistik가 훗날 영어로 번역되면서 등장한 어휘
 - 국가(Staat, state)에 관한 정보의 산술적 표현을 일컫는 의미(Wissenschaft der Staaten)

국가의 역할: 4. 정치경제학과 통치론

- 부의 증진이 국가의 긴절한 과제로 간주되었던 당시 상황, 그러한 과제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방식으로 국가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일종의 '관념적 당위'가 됨
- 부의 증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당연한 것으로서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런 역할에 충실하지 않은 정부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통치자들이 잘 알고 있다면, 통치자들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국가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 ▶ 가령, 어떤 국가권력의 행사방식이 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 플라톤, “그것은 지혜에 따른 것이 아니다”
 - 아리스토텔레스, “그것은 공익추구행위가 아니다”
 - 몽테스키외, “그것은 분리된 권력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다”
 - 스미스, “그것은 국부 증진에 해가 된다” (☞ **역사상 가장 실천적으로 성공한 논법?**)

V. 애덤 스미스와 자유

스미스와 자유

- 자연적 자유의 체계

- “**특혜를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 모든 제도가 완전히 철폐**되면 분명하고 단순한 **자연적 자유의 체제**가 스스로 확립된다. 이 체계 하에서 모든 사람은 **정의의 법(laws of justice)**을 위반하지 **않는 한**, 완전히 자유롭게 자기의 방식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근면과 자본을 바탕으로 다른 누구 혹은 다른 어느 계급과도 완전히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다.”(『국부론』)

*자유: “완전히 자유롭게 자기의 방식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

*평등: “모든 사람은” (☞ 특혜가 철폐되어야 하는 이유)

*정의: “정의의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등, 완전한 정의의 확립”이
모든 사람들의 번영을 최고로 보장하는 단순한 비결 (『국부론』)**

스미스와 자유

- 스미스는 자유의 옹호자
 -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돌보고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
 - **인간의 자유는 “정부가 보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훌륭히 성장할 수 있다”**(『국부론』)
- 자유를 위한 국가의 역할이 존중의무나 부작위의무에 그치는 것은 아님
 - 자유의 평등한 향유를 위해 필요한 물적,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 ① 국가는 개인의 자유(특히 사리추구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과,
② 평등한 자유의 보장이라는 가치를 포함해 여러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원칙은 **스미스에게 양립 가능함**

스미스와 자유

◆ 18세기 말, 최저임금법 사례

- 1795년 영국, 휘트브레드는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당시 수상이었던 피트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함
- 흥미로운 점은, 휘트브레드나 피트나 **모두 스미스를 주장의 주요한 논거로 원용함**
- 휘트브레드는 스미스가 형평의 관점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고임금의 필요성을 지지했고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한 임금규제에 우호적이었다는 측면 강조
- 피트는 스미스의 권위를 빌려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

“이 논쟁은 두 개의 상이한 ‘스미스’ 간의 충돌” (엠마 로스차일드)

(Q) 어느 스미스가 진실에 더 가까운가?

스미스와 자유

◆ 개혁가로서 애덤 스미스

- 인간의 능력은 천부적으로 대등함, 재능의 차이는 후천적인 것
- 상공업자들의 기만적 행태를 폭로, 이들과 정치권력이 유착되어 나타난 중상주의 정책에 대해 누구보다 혹독하게 비판한 논자
- 의회의 결정이 자본가가 아니라 노동자에게 이익이 될 때 그것은 공평한 결정
-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시도 지지
- 부자보다 빈자에게 부담이 되는 세금에 반대, 부유층에 가중된 조세부담 정당화

스미스와 자유

◆ 개혁가로서 애덤 스미스

- 영국이 미국식민지에 대한 모든 권한을 자발적으로 포기해야 함을 주장
 - 식민지에서 얻는 이익보다 식민지 유지 비용이 더 큼 (vs 지배층의 사적 이익, 국가 위신)
- 영국 본국의 의회에 미국 식민지인들의 대표가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
 - 대표자의 수는 **납세액에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
 - 장래에 식민지인들의 납세액이 영국인들의 그것을 초과하는 때가 온다면, **미국이 제국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상**
- 사회 기득권들이 주도권을 쥐고 사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노동자/빈민들의 사회적, 정치적 힘을 증대시켜 기득권 세력의 영향력을 견제하고자 함**

스미스와 자유

- ▶ 『국부론』의 혁신성은 화폐, 무역, 가치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빈곤을 바라보는 시각과 빈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었다 (힘멜파브)
- ▶ “18세기적 맥락에서 스미스는 빈자들에 대한 매우 존엄한 이해를 보여주었고, 이는 “『국부론』에서 스미스가 이룩한 가장 새로운 성취물” (플레이쉐커)

스미스와 자유

- 앞서 스미스가 설명한 국가의 역할들은,
 - 국가와 통치에 관한 기본원리를 **18세기**라는 시대적 배경과 **영국**이라는 공간적 배경 속에 투사시켜 도출한 **산출값**에 불과함 👉 보편적 내용 아님
- **현대적 함의**를 찾기 위해서는 스미스의 기본원리로 돌아가야
- 국가개입에 대한 스미스의 강한 거부감은, 18세기 영국의 중상주의를 겨냥한 것
 - “한 쪽으로 심하게 굽어진 막대기를 바로잡으려면 그만큼 심하게 반대쪽으로 굽히지 않으면 안 된다.”(『국부론』)

※ 스미스의 핵심은, ‘정의’가 보장되는 ‘평등’한 ‘자유’의 보장

- ▶ **국가의 존중의무와 개입의무**는 이 목적을 위한 동근원적인(co-original) 원리
- ▶ 특히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독점과 특권**에 매우 비판적

스미스와 자유

◆ 스미스와 정치적 자유

- **정치적 자유의 옹호자!** 정치적 자유는 경제적 자유를 위한 효과적 수단
 - 중상주의는 경제적 자유를 억압!
 - 그런데, 중상주의의 원인은? 중상주의에 대한 해결책은?
- 정치적 자유의 행사는, **외적 간섭**뿐만 아니라 **내적 의지의 결핍**으로부터도 제한됨
 - 본성적 측면: 인간은 정치참여의 수고로움보다 사적 평온을 추구(『도덕감정론』)
 - 계급적 측면: 노동자들은 경제적 압박과 여유부족으로 정치참여 포기
- 정치적 자유의 행사는 일정한 **능력**을 필요로 함
 - 공적 문제를 이해할 지적 능력, 경합하는 견해들 간의 논리적 우열을 가릴 이성적 판단력
 - 능력부재 시, 공적 논의 참여 어려움 → 참여해도 주장 관철 위한 성공적인 설득작업 어려움
상대방의 기만적 주장에 휩쓸려 자기에게 불리한 주장에 동조하기도 함

감 사 합 니 다